

특 집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김현미**

〈국문초록〉

재난의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는 젠더, 계급, 인종적 불평등에 기생하며 증폭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사적 영역이 의식주, 안전, 교육, 노동, 돌봄 등의 중층적 요구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면서 여성에게 최대의 부담을 지우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전통적 성 역할이나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를 감내하는 혹은 감내하라는 사회적 압박을 받는다. 동시에 여성들은 코로나 위기로 장기화한 사회적 돌봄의 공동화를 메우는 것이 개별 여성의 희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코로나 재난 위기를 가족, 노동, 돌봄, 안전, 회복 가능성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사회 기획의 페미니즘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재난 이후의 대안적 사회 기획은 기존의 경제 중심, 인간중심 모델을 넘어서는 생태주의적 관점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을 지향할 때만이 회복적 젠더 정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돌봄 노동, 사회적 재생산, 젠더, 생태주의, 코로나19

* 본 논문의 초안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주최 “코로나 시대 젠더, 생태적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추계학술대회(2020년 11월 6일)에서 발표되었다.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hmkim2@yonsei.ac.kr)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 제기

코로나 위기는 인간 또한 환경 '위험에 빠진 종(species)'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일깨운다.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수는 7천3백60만 명, 사망자는 164만 명에 이른다. 저기 먼 곳의 북극곰 멸종 위기로 이미지화되었던 기후 온난화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 열병처럼 동물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을 '숙주'화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무자비한 동물 '살처분'을 통해 전염병 방어막을 구성해왔던 한국 사회 또한 이미 인간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코로나로 일상적 삶의 유예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은 생태 위기, 인간 생명의 위기이며 또한 사회적 위기다. 재난의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는 젠더, 나이, 계급, 인종적 불평등에 기생하여 증폭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나 봉쇄(lockdown)는 기존에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고립과 빈곤화를 촉진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사적 영역이 의식주, 안전, 교육, 노동, 돌봄 등의 중층적 요구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면서 여성에게 최대의 부담을 지우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전통적 성 역할이나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를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Hennekam and Shymko, 2020). 또한,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강요하는 성차별은 위기 시에 더욱 심화된다.

본 논문은 코로나 재난 위기를 가족, 노동, 돌봄의 의미를 구성해 온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체제의 위기라 규정하며, 포스트-코로나 사회 기획의 페미니즘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통해 이윤을 축적해 온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동식물, 물, 토양 등 자연 존재와 여성의 노동과 감정을 종종 무한대로 공

급될 수 있는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면서, 낮은 가치를 부여했다. 돌봄 노동은 생명과 사회적 재생산을 관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며, 코로나 위기 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인간 활동이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는 돌봄을 보편적 인간 활동이 아닌 여성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기존의 젠더 체계의 불평등성을 지속하고 강화한다. 또한, 남성 중심의 자본, 기술, 생산중심의 해법은 자연과 인간의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이해관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로 표현되는 '회복' 혹은 '정상화' 모델은 젠더 불평등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의존하여 기획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젠더 불평등체제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 온 '통합된' 체계로서의 사회 재생산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난 이후의 대안적 사회 기획은 기존의 경제 중심, 생산중심 모델을 넘어선 사회적 재생산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글로벌 생태 위기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모델 또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생태와 환경 요인을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젠더 정의와 생태주의를 통합하는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코로나 재난의 젠더 불평등성

코로나 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의 마리아 홀츠버그(Maria Holtsberg)는 “위기는 성차별을 심화시킨다”라고 말하면서 휴교로 인한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의 급증, 가정폭력의 증가,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의 70%에 달하는 여성들의 감염

위험에의 노출, 이주 가사도우미의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을 예로 들고 있다(라라 오엔, 2020). 팬데믹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젠더, 계급, 인종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일으킨다.

케이트 반(Kate Bahn)과 동료들(Bahn, et al., 2020)은 자연재해와 건강 위기는 ‘젠더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는 특히 여성 다수 직종인 건강 보건, 교육, 소매 및 음식 서비스, 포장, 무, 유급 돌봄 노동 종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위기 시 여성의 재생산권 또한 보호받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임신한 여성을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므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검진, 임신 중지, 출산 등의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 위협과 불안이 심화됐다(Comas and Carreras, 2020).

최근 연구들은 팬데믹이 돌봄 노동의 젠더 불균형을 강화함으로써 이것이 향후 여성의 임금 노동 지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앤드류(Alison Andrew)와 동료들(Andrew, et al., 2020)은 봉쇄 기간 돌봄 노동의 젠더 격차를 밝혀냈는데, 자녀가 있는 영국 여성들은 하루에 10.3시간을 아이를 돌보았지만, 남성은 2.3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택근무 시, 가족과 집안일로 방해받는 비율도 여성이 훨씬 높았다. 한 달간의 봉쇄 상황에서의 호주의 맞벌이 가족을 연구한 크레이그와 처칠(Craig and Churchill, 2020)은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분석한다. 남편의 아이 돌봄이 증가하면서 수치적인 의미의 젠더 격차는 줄었지만 돌봄 노동이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헤네캄과 심코(Henekam and Shymko, 2020) 또한 봉쇄 중인 프랑스 여성과 남성 20명에게 요청한 ‘일기’(diary)를 분석하여 돌봄 노동이 성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했다. 여성들은 봉쇄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준거 삼아 더 많은 다중적

책임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이 아이를 더 잘 돌본다'라는 전형적인 구실을 대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봉쇄의 충격을 완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캐나다의 젠더학자인 메린 올척(Oleschuk, 2020: 509)은 코로나가 '형평성의 균형을 위태롭고 불예측적인 방식으로 깨트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코로나는 위기를 버텨낼 자원이 없는 빈곤 계층 여성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계층 여성의 돌봄 의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산층이나 전문직 여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올척(Oleschuk, 2020)은 코로나 위기가 학계의 전문직 여성 종사자의 평가와 승진에도 향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여성은 학계에 만연한 성차별이라는 장벽을 오랜 기간 경험해왔지만, 펜데믹 이후 또 다른 난관을 경험하고 있다. 올척은 펜데믹 이후 몇 달간의 논문 투고 데이터베이스, 논문 출판 서버,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다양한 분야별로 폭넓게 조사한 결과, 전해보다 젠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단독과 공동 저자 모두에서 남성의 논문 제출과 출판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Frederickson, 2020). 올척(Oleschuk, 2020: 507)은 이와 같은 '젠더화된 코로나 출판 격차'(gendered corona publication gap)는 여성 학자들이 코로나로 초래된 일-가족 균형의 붕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학생들에 대해 강화된 책임감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남성의 논문 제출 등은 큰 변화가 없었거나 빠르게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젠더 격차는 심화되었다. 출판 젠더 격차는 여성의 학계 진입, 승진, 정년보장 심사 등에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올척은 대학이 이런 불균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평가나 행정에서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가 전 지구적인 젠더 불평

등을 강화하면서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 한국 여성들은 코로나 위기를 일자리 상실, 폐업의 고통, 돌봄 노동의 증가, 코로나 우울감 등으로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위기 직전인 2월 대비 9월 현재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47만 명)이 남성(-26만 명)보다 많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28만 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0대(-20만 명), 15~29세(-16만 명), 50대(-14만 명), 60대 이상(-14만 명) 순으로, 모든 연령층이 타격을 받았다(김유선, 2020). 코로나 위기 초기인 2020년 3월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9만 5천 명, 4월은 29만 3천 명이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 두 달간 매일 8,133명의 여성이 실업 상태가 되었다(배진경, 2020). 이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고되거나 실직 혹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여성임을 보여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20년 9월 여성고용 동향에 의하면,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여성 실직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¹⁾ 특히, 20~40대 여성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형 일자리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복지체제가 정규직 혹은 임금 노동 중심의 구조(한동우, 2016)로 운영되고 있고 시간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해고나 강제 휴직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장치’나 실업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은 15시간 미만 초단기시간 일자리로 옮기거나, ‘휴직’ 상태에 놓임으로써 생활비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정관리사 또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여성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한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87,000명이 줄어든 반면, 여성은 1,380,000명이 감소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은 104,000명이 감소되어 남성, 47,000명의 두 배가 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한 대면접촉을 꺼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거나, 방역 장비 없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

돌봄의 위기 또한 심화하였다. 축적된 불평등과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의 '재가족화'(김원정, 2020)와 여성화가 강화되었다. 학교와 공적 돌봄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적 돌봄체계는 붕괴하였고, 집, 가족, 개인이 유일한 돌봄 제공자가 되었다. '끝없는 교대(never-ending shift)'(Boncori, 2020)나 '돌밥돌밥'으로 표현되는 가사 노동의 연속과 실행, 돌봄의 과중한 부담과 일터의 불안정성으로 여성들은 돌봄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새로운 형태의 돌봄 책무와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김영란(2020)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 이후 맞벌이 여성의 40.7%와 외벌이 여성 38.7%가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돌봄을 더 부담하였다고 응답했다. 연령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성인 없이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미취학 영유아의 6.2%(하루 평균 2시간 32분), 초등학생의 38.3%(3시간 54분), 중·고등학생의 72.3%(5시간 31분)가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란, 2020). 특히 약 154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돌봄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20.3.22).

기존에 상품으로 구매하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이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제한적인 형태로만 공급되었다. 특히 어린 자녀, 환자, 노약자,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여성의 경우 상업화된 돌봄 노동, 긴급돌봄 체제와 같은 공적 돌봄, 부모나 자매 등 가족과 친족을 통한 비시장적 사회 관계를 통한 돌봄을 이리저리 엮고, 우왕좌왕 횡단하고, 비용을 조절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시 봉쇄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비대면 인터넷 기술을 통한 돌봄'(Virtual Care) 시간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여성은 자녀의 온라인 학습 지원, 집에 있는 아이와의 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 요양원에 계신 부모나 친지와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돌봄 요구에 부응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특정 시공간에서 시간, 자원, 감정을 쏟을 때 이루어지는 돌봄은 전통적인 임금 노동과는 달리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혹은 타자 착취적 특징을 갖는다. 여성들은 자신의 돌봄을 위해 시간을 쓰면 종종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Vohra and Taneja, 2020: 7). 코로나 시기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돌봄의 과다함에서 오는 시간 압박의 증가뿐만 아니라, 돌봄에 내재한 유대와 친밀성,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타인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해 호혜성에 기반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과, 돌봄 대상자와의 친밀감에서 오는 미안함과 죄책감 등 복잡한 '자책의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업 여성들은 전업 돌봄자로 이동하거나, 임금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가사' 활동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월 179,000명에서 9월에 256,000명으로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맘'의 48.6%의 퇴직 사유가 '자녀돌봄 공백'이었다(『경향신문』, 2020.12.27).

여성들 내부의 분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보장받은 정규직이나 전문직 여성은 코로나 위기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관계망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여성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30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

은 '자기 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기 책임과 자립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임금 노동자가 되었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자기 착취적인 프리랜서형 일자리는 조건 때문에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휴식과 섭생,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적 지지 모임 등의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국민일보』, 2020.9.9) 또한 심각한 젠더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미디어의 현황 파악에서 젠더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코로나 사태가 여성의 노동, 공감 및 돌봄 능력에 기대어 해결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피해나 기여는 제대로 담론화되지 않고 있다(김현미, 2020). 한국여성민우회(2020)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언론에서 '돌봄'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코로나 관련 전체 기사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 위기의 성별 영향력은 사회적 토론이 되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젠더 위기가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재난 대응 방식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성에 기인한다.

3. 회복과 정상성의 '재남성화'?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중심적인 재난 관리 체제에서 여성의 경험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판해왔다. 여성들은 전 세계 식량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자연 재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Gaard, 2015). 또한, 여성들은 재난에 취약한 인간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런데도, 재난이나

재앙위기 대응 방식과 방향을 결정짓는 국가의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코로나 위기는 인간 생명의 위기로 죽음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상화된 유례없는 재난이다. 생산력의 확장에만 목표를 둔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시장 중심의 통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생태 및 인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체제를 이끌어 온 거대 자본가와 정치 엘리트는 재앙과 재난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피해 부담에서 벗어난다.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누가 재난 시 피해를 받고, 부담을 지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회복과 복구 과정에서 젠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현재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해왔다.

재난을 다뤘던 기존 연구들은 재난이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끌어내기보다는, 또 다른 성격의 자본주의 축적 체제로의 전환과 국가의 남성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쇼크 독트린』에서 지적했듯이 재앙은 기존 경제 모델의 위기를 수정하고 갱신하면서 ‘충격요법’을 통하여 새로운 지배질서를 형성하는 현대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클라인, 2008).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과 같은 재난을 겪게 되면 대중들은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이런 틈을 타 강력한 경제 조치 및 통치 규율을 발동해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재형성하거나 강화한다. 클라인은 이를 재앙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로 명명한다. 미국의 카트리나 재앙 이후의 사회 변화를 연구한 신디 카츠(Katz, 2008)는 미국의 회복 정책은 재난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확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비판한다. 중앙 및 지역 정부는 재난이 휩쓸고 간 뉴올리언스 지역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고, 백인 중산층 위주의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민간 자본의 회복과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재난의 위기를 새로운 자본 확장의 기회로 보는 경향을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에 의한 ‘적대적 사유재산제’라 명명한다. 국가는 민간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물 자원 관리, 공공주택 제공, 건강, 안전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정작 재난의 최대 피해자들은 또 다른 재난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로 방치되었다.

일본의 3·11 재난(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복구 과정을 연구한 미레 코이카리(Koikari, 2019)는 일본 정부가 회복과 복원의 의미를 어떻게 상상하고 실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 부계 혈족주의, 군대, 스포츠 등을 통해 남성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복원력을 이끌었고, 이것이 현재의 우경화된 아베 신조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분석한다. 즉, 재난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기획을 세우기보다는 국민의 두려움과 위축을 이용하여 '국가를 다시 남성화'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 또한 여러 단편적인 사례에서 목격하듯, 사회의 '재남성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여성들은 전염병 위기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와 지역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소위 '독성 남성성(Toxic Masculinity)'이라 불리는 현상 또한 목격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강인한 '남성성'에 대한 역행이라 거부하거나, 위기 상황이 초래한 불안을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풀어내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Gupta, 2020).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회자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구호와 회복의 기획에서 익숙한 가부장성이 반복되고 있다. 개인이 아닌 세대주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자로 결정한 행위나 '한국판 뉴딜'의 공공 자원 투자에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나 돌봄 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위에서 비판한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재난의 일상성 회복을 경제 활성화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코로나 재난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하고 불안정한 조건에 놓인 여성, 청년을 포함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개인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자본가와 지역 상공인을 살리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남성 다수 직종인 건설이나 IT 등 기간산업의 일자리 회복을 유일하고도 주요한 의제로 설정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정치 문법과 관습으로 정치-자본의 연합 논리가 되풀이되었다(김현미, 2020). 포스트-코로나 국가대전환 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44.8조를, 그린 뉴딜에 42.7조를 투자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9.1). 밀접 접촉으로 항시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 산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친자본적 성향과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 및 수소 자동차의 양산을 위한 대자본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대규모 공공투자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취약한 삶의 회복과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생산중심, 기술중심, 인간(남성)중심의 사회 기획의 관성을 수정하고 성장 담론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은 부재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을 분석한 이정필과 박진희(2010)는 기후 변화 대응을 ‘기후 친화 산업의 육성, 보급’,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등 신성장 산업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술-시장 중심주의 해법이 결코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책안에 ‘성별 분리된 자료’가 없고,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홍승아·김혜영·장미혜(2009)는 녹색 ‘성장’론에 배태된 남성중심주의가 여성이 밀접하게 관여하는 생활세계나 생활공간 등에 관한 무지와 정책적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생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해결의 긴급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졌다. 펜데믹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정부의 그린 뉴딜은 탄소배출의 목표를 공표하고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전 정부의 자본과 기술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의 성별 영향력이나 젠더 관점의 부재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채효정(2020, 230-231)은 한국형 그린 뉴딜은 '노동, 여성, 생태'가 없고, "또다시 시장과 기업이 독점하고 주도하는 모델"로 이미 실패한 것이라 선언한다. 이런 모델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주권마저 자본에 종속되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에 대한 국가의 문제의식이나 대응 또한 부재하다. 코로나 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은 돌봄 영역의 기술 진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유급 돌봄 노동자의 부족과 임금 상승에 대처하고자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은 '언택트' 디지털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인간 돌봄자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원격 치료를 확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도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의 목적으로 2021년까지 돌봄 로봇 4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 돌봄의 재분배와 탈여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스마트 의료나 돌봄 로봇의 도입으로 의사와 환자, 간병인과 환자를 연결하는 등 쌍방향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중개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급 돌봄 노동자는 주문형 작업 시스템에 의해 일을 하게 된다. 맥리비(MacLeavy, 2020)는 이러한 돌봄 및 의료플랫폼은 돌봄의 "신자유주의 상상"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공익'으로서의 돌봄 개념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돌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공 지능형 의료 기계는 오히려 기계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인간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결국, 자본 확장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신체, 고통, 아픔이 종속되는 결과를

낱게 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 해법은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 간의 고유성, 지속성, 공감 능력 등을 삭제하면서 환자나 돌봄 대상자, 의료진이나 돌봄자 모두를 하나의 데이터와 수치로 평준화시키는 데이터 자본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또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와 돌봄 분야, 청소 및 배달 분야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로 범주화된다. 그만큼 감염 위험이 큰 이 분야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팬데믹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 분야의 남성 일자리 보호를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었고 정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 돌봄과 배달 분야의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대책은 최근에만 마련했다(『한겨레신문』, 2020.10.2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12.14).

코로나 위기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사회 기획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가중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대자본가와 정치 엘리트가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란 해법은 늘 자본의 논리에 힘을 보탬으로써 해고, 감축, 무임해고 등과 같은 적대적 노동 관행을 부추기고 사회적 위기를 ‘이윤’ 축적의 위기로 단순화시킨다. 코로나 위기의 회복 패러다임이 현재의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의 성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에 기대어 설계되면서 재난의 영향력, 방역, 회복의 과정 모두에서 성 평등의 가치는 삭제되었다. 정부는 돌봄의 힘듦이나 돌봄 공백의 해소, 공적 돌봄의 제공 등과 관련한 이슈를 긴급한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젠더 무감성을 드러냈다. 김원정(2020)은 “여성 노

동자를 삭제한 한국판 뉴딜”로 호명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과 재생산을 결합하는 통합적 사고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달라 코스따(Mariarosa Dalla Costa)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을 재생산의 관점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당시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백인 남성 노동계급 중심의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했고, 여성의 '주부화'를 강화했다(달라 코스따, 2017). 뉴딜은 보편적 일자리 복지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사실은 특정 인종, 계급, 젠더의 이해를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국 정부의 공공적 해법이 자본의 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젠더 정의나 생태 회복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4. 돌봄 사회로의 전환: 페미니스트 사회적 재생산모델의 의의와 한계

팬데믹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은 돌봄이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있다. 일본에 체류하는 유학생으로 사회적 고립을 직접 경험한 보흐라와 타네자(Vohra and Taneja, 2020)는 코로나를 통해 느끼고 깨닫게 되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코로나 위기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게 되면, 돌보는 일을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을 쓰는 행위가 실질적인 돌봄 관계로 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Nodding, 2002; Vohra and Taneja, 2020: 4에서 재인용)는 말을 통해 돌봄은 인간 간에 주고 받아야 할 선물이며, 돌봄 기관이 소유한 특권적인 책무가 아니라고 말한다(Vohra and Taneja, 2020: 8).

돌봄이 매우 가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은 시간과 육체

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수반한다. 코로나 위기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기간 유예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교육과 보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부담이 집과 가족에 전가되었고, 여성들이 팬데믹 위기를 버텨나가는데 필요한 다중적 책무를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가족’이 의식주의 제공, 보육, 교육, 어린이, 장애인과 노인 돌봄의 최소 단위로 기능해왔고(김민주, 2019: 911), 가족 이외에는 “자녀와 노약자의 요구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만한 대안적인 사회 재생산 조직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윤자영, 2012: 193)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성 불평등은 심화하였고, 여성의 취약성은 증가했다. 현재의 코로나 젠더 위기는 개인의 노력, 가족이나 가구 단위를 통한 위기 해결의 한계를 드러냈다.

페미니스트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의 핵심은 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 재생산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Bahn, et. al., 2020; 김현미, 2020). 전통적으로 사회적 재생산모델은 생산중심의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사회 기획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생산, 임금 노동 중심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제 중심 모델을 비판해왔다. 사회적 재생산은 크게 인구 재생산과 일상적인 차원에서나 세대의 연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안전, 건강, 돌봄의 제공뿐 아니라 그 사회가 유지되는 필요한 지식,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관습을 전수하고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화 과정을 포함한다(Elson, 1998). 사회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뿐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과정의 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김지영, 2010). 사회 재생산모델은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 자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불평등, 차별, 위기 해결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즉,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생산과 경제는 사회의 외면적 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이지,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행복, 안전, 평등, 미래에 대한 열망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생산과 경제력, 임금 노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생명, 생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의 공급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돌봄을 무임이나 저임으로 제공해 온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기여를 고려할 때에만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진옥(2012: 74-75)은 사회적 재생산모델은 '국가와 사회, 공적과 사적, 경제와 비경제, 생산과 재생산의 이원화된 허구적 경계를 허물고 실제화하는 이론적 작업'이라 표현한다. 코로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 방식이 여전히 공사 분리, 경제 우선주의, 성별 노동분업 논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백영경(2020)은 코로나로 촉발된 돌봄 위기를 '책임 분배의 위기'와 '돌봄이 특정한 노동으로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돌봄 요구에서 자유로운 성인 남성을 이상적인 노동자로 간주하는 일터의 지배적인 관행(안숙영, 2020)이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임금 노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돌봄 노동의 전폭적인 담당자로 규정된다. 돌봄이 여성의 일로 본질화되면서 돌봄 요구가 증폭한 코로나 상황은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돌봄 공백을 초래했다. 돌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생 수행해야 할 노동이며 선택으로, 사회 구성원은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을 통해 생명 유지, 생존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회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 온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재생산모델에서 강조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 기업, 지역사회가 돌봄 윤리를 중심적 가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Vohra and Taneja, 2020).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첫째, 세대 간 연속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은 돌봄자의 자

질을 갖춰야 하며, 훈련과 실천을 통해 돌봄 노동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노동자이며 동시에 돌봄자라는 정체성을 갖춰야 하고, 국가와 기업은 임금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런 변화가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적 돌봄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팬데믹이 심화될수록 노동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여성, 청년, 영세업자, 사회적 약자와 빈곤 계층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식주, 일자리, 교육, 의료 및 보건, 돌봄 등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제와 시장 중심의 모델은 경제력이나 경쟁력 없는 존재들을 공적인 참여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공평이나 공정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해왔다. 사회적 재생산 관점은 취약한 집단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구성원을 사회적 존재로 유지하기 위한 공적 돌봄의 제공을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들은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량과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들 다수의 사회적 참여 없이는 사회는 건강하게 재생산될 수 없다.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은 어떻게 이들의 사회적 존재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돌봄 소득(백영경, 2020)이나 기본소득(안숙영, 2020) 논의 또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케이트 반과 동료들(Bahn, et al., 2020)은 돌봄의 가치와 상호의존의 힘을 적절히 강조하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이 코로나 대응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돌봄과 자원의 교환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에게는 유급 가족 휴가와 의료 휴가 혜택을 확대하고,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에게는 식량과 약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복지와 정의를 결합한 사회적 돌봄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시장이나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

은 재정적 안정이나 성장 같은 산출 중심의 측정 기준에 의한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정작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가장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가정이나 사적 영역의 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위기 이후에 태동하는 사회적 기획은 부재한 것, 귀중한 것,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특정 사회의 공동체적 감각에 의존한다. 이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줄곧 강조해 온 돌봄의 윤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돌봄 노동의 시장화와 여성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실 현재의 돌봄 위기를 초래한 것은 한국 사회가 돌봄 노동의 여성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고, 가족 내 민주화를 통한 남녀 간, 세대 간 돌봄의 공유 또한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김현미, 2011). 여성 대부분은 돌봄 사회로의 이동을 열망하면서도 돌봄의 여성화나 유급 돌봄 노동자의 '여성화'라는 트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여성화에 반대하며, 모든 이가 돌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돌봄 노동 또한 젠더 위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문화되고,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송다영·백경흔, 2018).

돌봄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상황에서 수행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에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돌봄은 부담이고 노동이지만 동시에 자발성, 사랑, 호혜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이다(윤자영, 2012: 191).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돌봄의 완전 상품화나 시설화를 '윤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여성들의 평등을 위한 투쟁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는 권력과 불평등에 기반한 강요된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강제이고 무엇이 자발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관계적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이나 이주자 등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와 돌봄 노동은 기술발전이 이뤄져도 쉽게 대체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식주의 공급, 친밀성의 구성, 양육, 가사일, 환자 돌보기 등의 노동은 상황 의존적이며 관계적이고, 가장 '노동집약적'이며, '신체적'인 노동이다. 또한, 노동의 집행이 장소-의존적이므로 '거리 두기'나 '비대면'을 통해서 는 수행되기 어렵다. 또한, 공감 능력, 연민, 신뢰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이므로, 고도의 성숙함과 숙련을 요청한다. 인간과 관계를 재생산하는 돌봄 노동은 이 때문에 기계, 컴퓨터, 디지털 연결성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돌봄은 완전한 상품이 될 수도 없고, 개인, 가족, 기업, 사회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체계를 구성해내는 것이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돌봄을 교환하는 존재이며, 돌봄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이런 돌봄의 윤리를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이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이다.

5.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의 모색

이정필과 박진희(2010)는 기후 변화가 환경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생물학적 범주로는 여성·아동·노인이고, 사회경제적 범주로는 빈곤층·사회적 약자이며, 지리적 범주로는 저지대·해안가와 아·열대지역에서 생태계·공유자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원주민·농어민”이다(이정필·박진희, 2010: 4). 왜 이들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가를 탐구함으로써, 이들의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의 권력을 분석할 때, 사회 정의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후 정의(justice)는 재난 취약성, 인권 및 역량의 시각에서 기후 위기에 잠재된 불평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홍덕화, 2020). 코로나 재난은 기후 위기를 포함한 생태 위기를 드러낸 사건으로 인간 집단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자연 착취와 오염에 기인한다.

자본/남성 중심의 발전주의 모델은 기후와 생태 위기를 가속해왔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인 '재생산'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정필과 박진희(2010)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젠더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유를 기후정책의 수단과 전략안에 깊이 녹아 들어있는 남성중심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으로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대응정책이 ppm, 상승온도, 목표 기간 등에 대한 “숫자 말하기”의 함정에 갇혀 있고, 기후 위기의 원인이기도 한 기술과 시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작 생산과 소비의 일상적 실천에 관여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민감한 여성들은 기후 위기 대응의 의사결정에서 줄곧 배제되어왔다(이정필·박진희, 2010: 8). 전통적인 사회 재생산모델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책무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지만, 사회적 재생산의 주요 구성물로서 환경과 생태주의를 제대로 통합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인간 활동과 가치관의 세대 간 전수를 통해서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사회적재생산 모델은 자연을 외부에 존재하는 당연하고 본질적인 상수로 사유하면서 생태주의적 질문을 삭제해왔다.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난이 더욱 짧은 주기로 반복된다면, 인류의 사회적 재생산은 불가능하다.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은 안숙영(2020: 472)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소속된 사회의 재생산은 주류 경제 외에 사랑의 경제라는 돌봄과 어머니 자연이라는 공공재를 상호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모델이다. 다음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시론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관점과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생태 위기와 젠더 위기의 연결성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한 집단이 더 큰 피해를 부담하며 빈곤과 생명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이 때문에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돌봄 위기와 심화하는 생태 위기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시장 경제와 재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경제 체제와 생태계 사이에는 결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환경 정의론의 관점을 결합한 플로로(Floro, 2012)는 돌봄과 환경 파괴는 동시에 상호영향을 주는 ‘위기’라고 정의한다. 플로로는 생태계와 무급 돌봄 노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운영과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지만, 주류 경제학은 이 둘의 건강한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살핌’의 요구 사항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이 강조하는 수치적 성장주의는 생태계와 여성의 돌봄 노동을 수용 및 회복 능력 이상으로 착취해서 얻은 결과이다. 플로로는 “더 많은, 더 나은 시장”을 갖는 주류 경제 솔루션이 생태계와 젠더 위기 모두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극단의 피해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통한 인간 활동의 급속한 소비는 생태계의 기후 불안정화 및 취약성을 증가시켰고, 전 세계는 이미 더 빈번한 폭염, 가뭄, 홍수, 폭풍을 경험하고 있으며, 물 부족과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손실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단순히 약탈적 자본의 생산 방식에서 초래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특히 재생산 방식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경제 중심의 성장 모델에 대한 수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 삶이 구성되는 재생산의 방식 또한 급격히 재편성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경제 성장, 사회적 재생산과 생태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물질적 확장도, 인간의 돌봄도, 생태자원도 ‘무한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유, 공존, 순환,

돌봄 같은 생태주의적 가치를 사회 재생산의 운영 원리로 통합해내지 않으면 젠더 불평등과 환경 파괴는 동시에 강화된다.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은 인간이 경제나 사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족, 지역, 국가와 지구라는 사회는 인간의 자본과 노동을 통해서 지속한 것이 아니라, 공기, 물, 토양, 대기 등의 물리적 환경과 비-인간종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지속성이 보장된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며, 다른 비-인간종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물, 토양 오염, 화학물질의 침투, 바이러스 감염 등의 영향으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존재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강과 숲 등 자연을 통해 의식을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생태계 오염은 곧 여성의 질환과 빈곤화로 이어진다.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은 '환경'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 위기가 여성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여성의 재생산은 곧 환경 문제이며, 환경오염은 곧 여성 몸에 대한 폭력'이라 선언하는 드 치로(Di Chiro, 2008)는 생명을 유지하고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 공기, 토양, 생물 다양성 등 자연 생태계를 위한 싸움은 곧 여성의 생식 능력과 건강한 몸을 위한 투쟁이며, 여성 몸에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에 반대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여성의 재생산 정의와 환경 정의를 결합하는 확장적 연대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 박탈과 빈곤화

생태 중심적 사회 재생산모델은 자연은 공공재이며 사회적 재생산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통합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린과 모방-루(Greene and Morvant-Roux, 2020)는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을 공공재의 '박탈'이라는 의미로 개념화한다. 그들은 멕시코 현지 조사를 통해 정

부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 건립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어떻게 강을 ‘죽음의 강’으로 오염시키면서, 이들의 새로운 빈곤화를 촉진했는지를 보여준다.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되기 이전, 이 지역 주민들은 강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강에서 물고기와 음용수를 얻었고, 세탁하거나 놀이를 즐겼다. 사람들은 주택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정부의 건설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후 주민들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고, 과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얻었던 물을 ‘상품화된 버전’인 생수의 구매를 통해 확보해야 했다. 건강한 강과 토양 생태계가 제공해왔던 어류, 갑각류, 조류, 과일, 천연 의약품 등 ‘공유재’는 모두 사라졌고 대신에 폐수와 독성 물질의 영향으로 건강을 위협받았다. 결국, 이들은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생태자원을 ‘박탈’(dispossession)당했다.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더욱 빈곤해졌고, 주택구매 대출의 빚을 갚기 위해 착취적인 형태의 임금 노동에 더 많이 참여했다. 생태계 오염은 지구상의 거대한 인구 군에게 비시장적 ‘공유재’를 박탈한 것이며, 새로운 빈곤을 초래한다. 정부나 기업의 반 생태주의적 개발은 특정 집단을 질병과 불안, 빚, 과중 노동의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특히, 자원이 없거나 소비력이 약한 여성이나 빈곤 계층일수록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

3) 가족주의 비판

우리가 어떻게 인간, 가족, 문화, 사회와 지구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는 정치적인 이슈이다. 사회적 재생산모델은 이성에 중심의 핵가족을 재생산의 기본 단위로 설정해왔다. 사회 재생산모델은 가족과 사회, 사적과 공적 영역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노동 간의 ‘가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 재생산의 젠더 정치는 생산과 재생산의 정치며,

이는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노인을 돌보고, 임금 노동과 가정 일을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음식과 의복을 구매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노인을 돌보는지 등을 포함한 제도화는 환경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노엘 스테전(Sturgeon, 2010: 104)은 규범화된 생활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과 섹슈얼리티의 성별화된 배열에 관한 탐구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테전은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에 깊이 침윤된 백인 중산층 이성에 가족주의가 어떻게 재생산의 문제를 '환경'과 분리된 과정으로 보게 만드는지를 비판한다.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이를 제공하는 부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마치 복지국가의 '축소물'처럼 기능한다. 즉, 가족은 소비를 조정하고, 과다한 욕구를 제어하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족주의는 환경에 위험한 사회적, 경제적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묶어 두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즉, 가족주의에 얽매인 여성들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상상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스테전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자주 보이는 교외의 중산층 백인 가정 여성의 예를 든다. 여성들은 자동차를 운전한다. 재생 불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배송의 소비재를 애용한다. 또한, 남반구 등의 빈곤층 착취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글로벌 생산 및 유통 체인 판매장에서 모든 식품, 의류 및 소비재를 사는 '쇼핑객'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주류 이미지와 현실은 여성이 수행하는 재생산 배열 방식이 마치 이래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대안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토론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성에 중산층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태영역(biosphere)의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암묵적 전제를 강화한다.

스테전은 이성에 가족의 재생산 방식이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배열이 아

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turgeon, 2010: 108). 재생산은 물질적이며 동시에 지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이란 단위에 얽매 이게 되면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역할에 동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성에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재생산의 이미지는 여성을 시장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고, 생태 위기와 의 관계에서 모순적인 경험을 갖게 한다. 여성들은 생명과 생존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생태 위기를 초래하는 재생산과 생활양식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불가피하게 배달과 택배를 통해 가족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여성들은 쓰레기 다량 배출자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가족주의’와 환경 정의의 복잡한 요구 안에 있는 여성들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코로나 재난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봉쇄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적이며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물신주의와 소비주의의 과도함을 일깨운다. 스티븐 마일즈(Miles, 2010)가 ‘공모적 공동체성’(complicit communitar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소비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으로나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왔던 공모였다. 여성들은 소비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이상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여성의 소비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젠더 정의에 기반한 생태주의적 선택이 가능한 삶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스티어전은 모든 재생산은 지구 환경, 경제, 사회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인간의 생식 능력과 지구의 생식 능력을 분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경제적 세계화, 성 역할, 군사주의, 자연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에 의한 생명의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재생산 정의’(environmental reproductive

justice)라 불리는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turgeon, 2010: 108). 즉, 아이, 가족, 결혼, 인구, 유전자와 양육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관계적이고 분리할 수 없다. 스테이션은 지구상에서 살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여성들이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성에 가족주의가 강요하는 성 역할이나 젠더 배열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하면서 가족 생존의 물질화 과정을 다양화시키는 퀴어 에코 페미니스트로서의 관점을 강조한다.

4) 살아있는 환경주의(Living Environmentalism)

페미니스트 정치 생태론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식민주의가 초래한 지구적 차원의 착취와 환경 파괴에 주목하면서도 어떻게 구체적인 지역과 일상에서 환경 문제를 다뤄나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즉, 환경 파괴의 전 지구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특정 지역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항하는 지역과 공동체 단위의 환경 관리를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Di Chiro, 2008). 가드(Gaard, 2015)는 여성들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바로 이런 지식이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디 치로(Di Chiro, 2008)는 일상과 생활을 재구성하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환경 정의 운동은 맥락이 삭제된 '환경주의'와는 구별되며,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과 생태주의 운동의 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환경주의는 환경, 공동체, 개인이 상호 관계하여 이뤄낸 재생산을 의미하며, 그것이 구체적인 장소, 맥락, 관계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살아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젠더 정의와 환경 정의의 동시적 회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재(2015) 또한 일상은 재생산과 생산이 맞물리는 장이며, 실패와 변용, 탈 맥락 화의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주장한다. 돌봄이나 재생산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서로 다른 조건의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일상과 삶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예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선 지역 단위의 생협이나 생활 공동체 또한 사회적 재생산의 물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과정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6. 맺음말

재난과 재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표현한다. 올리버-스미스(Anthony Oliver-Smith, 2002)는 재난은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연결을 통해 물질세계와 문화 세계에서 인간 활동을 '폭로'하는 것이라 말한다. 코로나 재앙은 인간 중심의 발전과 풍요의 결과물로 인간 또한 취약한 생명체가 될 수 있음을 전 지구적으로 일깨우는 생명과 생태 위기다. 조급하고 관습화된 '경제' 활성화 조치와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생태 전환적 사회 기획이 요구되는 위기다. 이 때문에 단일국가 중심의 엘리트 정치인과 글로벌 자본가에 의해 또다시 반복되는 자본주의 재생의 해법은 인류의 공공재인 자연을 박탈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해법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결국 더 심각한 사회 재생산 위기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

델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했다.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은 “환경 착취에 기반한 성장을 멈추고, 가치 있는 것(생산)과 가치 없는 것(재생산)의 위계와 구분을 재구성”(장이정수, 2020: 116) 하는 것이다. 또한, 무모한 약탈적 개발로 생명체들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존주의를 통해 “인간과 동료 종의 공존, 인간 사이의 평등에”(김현미, 2020: 80)에 다가가는 것이다. 에두아르도 콘(Eduardo Kohn)은 인류세를 인간적인 것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 의해 점차 변해버리는 불확실의 시대라고 정의한다(콘, 2018). 인간이 생산과 재생산을 통해 사회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물, 공기, 토양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태계의 비인간 혹은 인간 내부의 다양한 존재들과의 연결과 결속을 통해서였다. 이 때문에 자연은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개발과 축적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사회적 재생산은 자연의 건강한 재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스테이시 엘라이모(Stacy Alaimo)가 지적했듯이 생태 위협은 기존의 계급이나 사유재산 등의 분할에 들어맞지 않는 사회적 지도를 제작할 정도로 인류 모두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이 만든 물질이 규범, 표준, 예측 모델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이탈(deviance)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는 영웅적 개인주의, 과학의 진보, 그리고 자연의 정복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한다(엘라이모, 2018).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델은 젠더 정의의 관점으로 사회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위계를 해체하고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돌봄자의 인격을 구성해내는 것일 수 있다. 인간 돌봄자는 자기 돌봄, 타인 돌봄과 비인간 종과 생태계를 돌보는 존재로, 누구라도 이런 돌봄을 평생 수행해야만 하고, 좋은 돌봄의 의미를 지속해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환경오염과 파괴의 책임이 덜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돌봄 노동을 전담하거나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할 식량, 의료, 교육, 의식주 등의 지원체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불평등 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은 전 지구적 혹은 일국의 차원에서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모델을 요청한다. 국가가 모든 해법의 독점적인 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자본과 기업은 채취주의(extractivism)가 아닌 보존책임주의(stewardship)의 원칙에 따라 오염자 부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클라인, 2016), 국가 또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순환경제를 이뤄내야 한다. 또한, 모든 개인은 책임감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ship)으로 생활 방식과 습관에 배태된 환경 파괴적인 요소를 알아가고, 이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행동과 실천 양식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Salehi and et al., 2015). 책임감 있는 시민은 생태계의 회복이 인간의 생명, 건강, 교육, 가치관, 돌봄, 일자리,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자본과 국가 엘리트 중심의 시장 논리의 주도를 막아내야 한다. 허라금(2015)은 우리가 재난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부정의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의를 시정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태주의적 젠더 정의는 권리를 주장하는 각각의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의 문제이며, 이때 관계는 인간과 비인간 종과 자연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Gaard, 2015). 생태주의적 사회 재생산모델은 팬데믹 이후 덜 배제적이고 성 평등적이며 자연 앞에 겸허한 인간종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안적 사회구성원리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민주(2019),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재생산 비교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2호, 905-912쪽.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2020.7.25).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연구원』, KLSI Issue Paper, 제138호.
- 김원정(2020), “재난 위기,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 <코로나 위기를 넘어, 성평등노동으로> 토론회 자료집(2020.9.16).
- 김지영(2010), “사회적 재생산—생산하는 재생산의 역학”, 『여/성 노동, 가치를 말하다』, 사회적재생산연구회 엮음,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15-38쪽.
- 김현미(2011), “중산층의 욕망과 커지는 불안들”, 『창작과 비평』, 제39권 3호, 38-54쪽.
- _____(2020), “코로나 19와 재난의 불평등: 자본과 남성 중심의 해법에 반대한다”,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김은실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71-80쪽.
- 달라 코스따, 마리아로사(2017), 『집안의 노동자』, 김현지·이영주 옮김, 서울: 도서출판 갈무리, Dalla Costa, M.(2015), *Family, Welfare, and the State: Between Progressivism and the New Deal*, New York: Common Notions.
- 배진경(2020), “성평등 노동과 ‘돌봄 뉴딜’을 위한 제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코로나 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20.6.11).
- 백영경(2020), “탈성장 전환의 요구와 돌봄이라는 화두”, 『창작과 비평』, 제48권 3호, 36-48쪽.

- 송다영·백경훈(2018), “사회적 돌봄 부문으로의 남성참여 확대를 위한 시론적 연구: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4호, 207-238쪽.
- 안숙영(2020), “젠더와 노동: 탈노동사회를 향한 상상”, 『사회과학연구』, 제59권 1호, 449-485쪽.
- 엘러이모, 스테이시(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옮김, 서울: 그린비, Alaimo, S.(2010),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윤자영(2012), “사회 재생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마크스주의 연구』, 제9권 3호, 184-211쪽.
- 이정필·박진희(2010),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 변화 대응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10.11.12).
- 이진옥(2012),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본 발전국가의 재해석”,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101쪽.
- 이현재(2015), “현대도시의 일상성 분석을 위한 페미니즘의 개념적 제안: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일상과 “수행적 반복”으로서의 일상실천”, 『시대와 철학』, 제26권 2호, 161-189쪽.
- 장이정수(2020), “한국판 뉴딜을 넘어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김은실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113-122쪽.
- 채효정(2020), “대화: 기후위기와 체제전환”(강경석, 김선철, 정건화, 채효정), 『창작과비평』, 제48권 4호, 223-251쪽.
- 론, 에두아르도(2018),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차은정 옮김, 서울: 사월의 책, Kohn, E.(2013), *How Forests Think: Toward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클라인, 나오미(2008), 『쇼크 독트린』, 김소희 옮김, 서울: 살림, Klein, N.(2008),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New York: Picador USA.

- _____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순희 옮김, 서울: 열린책들, Klein, N.(2014),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New York: Simon & Schuster.
- 한국여성민우회(2020),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건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토론회 발표문 자료집(2020.10.28).
- 한동우(2016), “노동사회로서 복지국가: 비판과 생태주의적 함의”, 『비판사회정책』, 제50호, 461-489쪽.
- 허라금(2015), “위험 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 제108집, 71-92쪽.
- 홍덕화(2020), “기후불평등에서 체제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4권 1호, 7-50쪽.
- 홍승아·김혜영·장미혜(2009),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drew, A., S. Cattan, and M. Costa Dias et al.(2020), 『*Parents, Especially Mothers, Paying Heavy Price for Lockdown*』,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Bahn, K., J. Cohen, and Y. Rogers(2020), “A Feminist Perspective on COVID-19 and the Value of Care Work Globall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7(5), pp. 695-699.
- Boncori, I.(2020), “The Never Ending Shift: A Feminist Reflection on Living and Organizing Academic Live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7(5), pp. 677-682.
- Comas, C. and E. Carreras(2020), “Covid-19 and Pregnancy: An Opportunity to Correct an Historic Gender Bias”, *Journal of Medical Virology*, pp. 1-3.
- Craig, L. and B. Churchill(2020), “Dual-earner Parent Couples’ Work and Care during Covid-19”,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Advance

- online publication, pp. 1-14.
- Di Chiro, G.(2008), "Living Environmentalisms: Coalition Politics, Social Reproduc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olitics*, 17(2), pp. 276-298.
- Elson, D.(1998), "The Economic, the Political and the Domestic: Businesses, States and Households i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New Political Economy*, 3(2), pp. 189-208.
- Floro, M.(2012), "Crises of Environment and Social Reproduction: Understanding their Linkages", *Working Papers*(AU-CAS-ECON),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Press.
- Frederickson, M.(2020), "COVID 19's Gendered Impact on Academic Productivity", *Github*, Retrieved July 14, 2020.
- Gaard, G.(2015), "Ecofeminism and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0, pp. 20-33.
- Greene, J. C. and S. Morvant-Roux(2020), "Social Reproduction, Ecological Dispossession and Dependency: Life Beside the Río Santiago in Mexico", *Development and Change*, 51(6), pp. 1481-1510.
- Hennekam, S. and Y. Shymko(2020), "Coping with the Covid-19 Crisis: Force Majeure and Gender Performativit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7, pp. 788-803.
- Katz, C.(2008), "Bad Elements: Katrina and the Scoured Landscape of Social Reproduction", *Gender, Place and Culture*, 15(1), pp. 15-29.
- Koikari, M.(2019), "Re-masculinizing the Nation: Gender, Disaster,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Resilience in Post-3.11 Japan", *Japan Forum*, 31(2), pp. 143-164.
- MacLeavy, J.(2020), "Care-work, Gender Inequality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Age of Covid-19",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pp. 1-17.

- Miles, S.(2010), *Spaces for Consumption: Pleasure and Placelessness in the Post-Industrial City*, Los Angeles: Sage.
- Nodding, N.(2002),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leschuk, M.(2020), "Gender Equity Considerations for Tenure and Promotion during Covid-19",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57(3), pp. 502-515.
- Oliver-Smith, A. and S. Hoffman(2002), "Introduction: Why Anthropologists Should Study Disasters", in *Catastrophe & Culture: The Anthropology of Disaster*, Santa Fe: SAR Press, pp. 1-22.
- Salehi, S., Z. P. Nejad, and H. Mahmoudi, et al.(2015), "Gender, Responsible Citizenship and Global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50, pp. 30-36.
- Sturgeon, N.(2010), "Penguin Family Values: The Nature of Planetary Environmental Reproductive Justice", in *Queer Ecologies: Sex, Nature, Politics, Desire*, eds. C. Mortimer-Sandilands and B. Eriks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02-133.
- Vohra, S. and M. Taneja(2020), "Care and Community Revalu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eminist Couple Perspective",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pp. 1-9.

〈신문기사·잡지·보도자료〉

- 『경향신문』, 2020.12.27,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직장맘 출퇴사 원인됐다".
- 『국민일보』, 2020.9.9,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선택 늘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9.1, "내년 '한국판 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 _____, 2020.12.1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코로나-19이후 여성고용 변화 분석 및

정책 과제 모색”.

『연합뉴스 TV』, 2020.3.22, “한부모가족 절반이 생계 문제…코로나19 직격탄”.

『한겨레신문』, 2020.10.22, “코로나 시대의 ‘필수노동자’”.

〈인터넷 자료〉

라라 오옌(2020), “코로나 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BBC 월드 서비스』, 2020.3.10,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815786>(검색일: 2020.3.30).

Gupta, A. H.(2020), “How an Aversion to Masks Stems From ‘Toxic Masculinity’”, *The New York Times*, Oct 22, 2020, <https://www.nytimes.com/2020/10/22/us/masks-toxic-masculinity-covid-men-gender.html>(검색일 2020.10.26).

(논문 투고일: 2020.10.30, 심사 확정일: 2020.12.03, 게재 확정일: 2020.12.17)

〈Abstract〉

'Gender Cris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Ecological Social Reproduction

Kim, Hyun Mee*

The impact of disasters is parasitic and amplifies existing gender, class and racial inequalities.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has placed the greatest burden on women as individual family and household becomes a place where women are required to meet multiple demands such as the provision of food, shelter, safety, education, workplace, and care. Women tend to accept disasters as 'inevitable' situations and endure traditional gender roles, as well as unequal treatment in the labor market. However, as the crisis has deepened, more women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care deficit due to prolonged social care and services can be satisfied only with considerable sacrifice.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a feminist perspective of post-Covid-19 social paradigm by analyzing the current gender crisis in terms of the care deficit and women's unprotected labor rights. This alternative social paradigm calls for a radical re-assessment of the existing labor market, the use of technology, and the male-dominated productivity model,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The ecological paradigm emphasizes restorative gender justice by pursuing a social reproduction model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and anthropocentric models.

Key words: care, Covid-19, social reproduction, gender, ecology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